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5년 6월 제 140-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더 많은 노숙인 찾아 하느님 사랑 전하겠습니다”

요셉의원, 영등포에서 서울역 앞으로 이전



28년 전 재개발로 신림동에서 영등포 역 앞으로 옮겨왔던 본원이 다시 재개발로 인해 서울역 앞으로 이전한다. 영등포에 비해 노숙인 수가 훨씬 더 많은 서울역 요셉의원에서도 후원자와 봉사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매진할 예정이다.

요셉의원이 영등포로 이사온 지 28년 만에 서울역 앞으로 이전해 새 등지를 튼다. 지난 1997년 개원 10년 뒤 재개발로 인해 영등포로 왔다가 또다시 재개발에 밀려 자리를 옮기게 됐다.

현재 본원이 위치한 영등포역 앞 쪽방촌 지역은 머지 않아 건물이 헐릴 예정이다. 재단 실무진은 병원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장소를 물색한 끝에, 지난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서울역 앞 동자동 지역 건물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다.

이전 계획 상 7월 18일까지는 영등포 요셉의원에서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약 2주간에 걸쳐 이사와 의로기기 설치 등 준비를 마치고, 8월 1일 서울역 앞 요셉빌딩에서 새롭게 문을 열 계획이다.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서울역 부근은 500여 명

140-1호
주요
소식



1

요셉의원 28년만의 이전



7

재단/병원 소식



11

봉사자 코너



16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20

국성회 소식





본원 상근 전문의인 고영초 원장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 거리 노숙인과 3,000여 명의 쪽방 주민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숙인이 모여있어 의료 수요도 그만큼 높다”고 말하고, “특히 교통이 편리해 환자나 봉사자 모두에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도 우선 순위의 하나로 꼽았다”고 밝혔다.

고영초 병원장은 “가난한 이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베푸는 선우경식 선생의 뜻과 요셉의원의 이념을 새기며,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더 많은 분들에게 변함없이 정성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타고 서울역 요셉의원 찾아가야죠”

본원은 영등포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노숙인, 쪽방 주민 등과 함께하는 동안 많은 후원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의료 정보시스템과 각종 의료기기를 꾸준히 현대화하고, 이 지역에서만 약 50여 만 명(누적)의 환자를 진료하는 성과를 올렸다.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들에게 본원 봉사자가 생필품을 나눔 하는 모습.



새로 옮겨가는 서울역 요셉의원에서 리모델링 작업 중인 모습(사진 위)과 건물 외관(아래 오른쪽). 사진 아래 왼쪽은 서울역 요셉의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모습.

요셉의원 직원과 봉사자들은 그동안 부활절이나 추석 등에 조출한 선물을 전하면서, 때로는 술 먹고 억지 쓰는 환자들을 달래면서, 이곳 주민들과 다사다난한 정을 나누었다. 방문진료팀은 중증환자나 장애인 환자 누가 어디가 아픈지를 자세히 꿰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변화에 따라 영등포를 떠나지만, 본원에서 약 처방을 받는 환자들이 서울역 요셉의원에 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장도 돌리며 공지를 하고 있다.

옮겨가는 서울역 요셉의원 건물은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좋은 입지 조건이 장점이다. 영등포 지역은 서울 서남권에 치우쳐 있는 데 비해 서울역은 서울시 전역과 외곽인 경기도 지역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다. 영등포 지역 환자들도 영등포역에서 1호선 전철을 타면 병원까지 20여 분만에 도착 가능하다.

영등포 쪽방 주민 임상원 씨(63)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요셉의원 내과와 정형외과에서 혈압약과 진통제를 처방받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요셉의원이 서울역으로 옮겨도 지하철 타고 진료받으러 가겠다”고 말했다.

처음 방문한 환자에게는 무료 건강검진 실시

본원은 1차 의료기관이어서 입원실과 수술실이 없으나, 외부 기관에 의뢰해 정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협력해 각종 암이나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어 종합병원 수준까지 진료 지원이 가능하다. 외부 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본인 부담 검사비와 진료비는 모두 본원에서 부담한다.

서울역 요셉의원을 처음 방문한 환자(신환 초진)는 먼저 1층에서 안내를 받아 진료 상담을 거쳐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상담을 하는 이유는 본원 무료 진료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나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다.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노숙인, 행려자, 의료수급자, 건강보험 체납자 그리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입국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이다.

상담 뒤 진료 대상자로 확인돼 진료카드를 받으면 ※아래 그림의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는다.

요셉의원 진료과목 (14개)

내과, 신경외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의학과, 통증클리닉, 일반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물리치료과, 치과

서울역 요셉의원 건물 내 시설

층수	이용 시설
1층	안내, 접수, 진료 상담실
2층	1진료실, 2진료실, 3진료실, 처치실, 간호사실
3층	약국, 안과 진료실, 이비인후과 진료실
4층	초음파실, 심전도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실, 소독실
5층	치과
지하 1층	물리치료실, 장애인 화장실, 샤워실

서울역 요셉의원 진료과목 및 건물내 시설 위치



사진 위는 진료할 환자가 대기순번표 뽑는 장면, 중간은 혈압 검사 장면, 사진 아래는 영상의학실에서 촬영한 엑스선 사진을 살펴보는 모습.

첫 방문 환자는 일주일 뒤 다시 내원해 병원장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협력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주선해 준다. 첫 방문 환자가 아닌 진료카드가 있는 기존 환자는 1층 접수실 앞에서 대기순번표를 뽑고 기다리다 순서가 되면 진료카드를 체크하고 접수 담당자에게 원하는 진료과를 말한다. 2층 혹은 3층의 해당 진료실로 올라가 순서에 따라 진료받으면 된다.

진료의뢰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근로능력평가서 등이 필요한 환자는 요셉의원 병원장 명의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서류는 귀가하면서 1층 원무팀에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1 상담 및 진료 접수

- 1층 상담실에서 상담 후 진료카드 발급받아 접수실에서 진료 접수

2 건강 검진(4층)

- 진단검사실 (혈액·소변검사)
- 영상의학실 (엑스선 촬영)

3 해당 진료실로

- 2층 진료실 (안과, 이비인후과는 3층)
- 치과는 5층

4 약 받은 뒤 귀가

- 진료 후 3층 약국에서 약물 받은 후 귀가

서울역 요셉의원 처음 방문하는 환자(초진) 진료 순서



사진 위는 진단검사실에서 채취한 혈액을 분석하는 모습. 아래는 치과 진료 모습.

치과 치료는 미리 예약 필요

본원 치과 진료는 예약제로 운영한다. 틀니 장착을 주로 하되, 심한 충치(신경치료 포함)도 치료받을 수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원무팀에 상담 예약(전화 02-2634-1760)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면 무료 진료 자격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자격 상담을 마치면 5층 치과로 올라가 요셉의원 치과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본원 이민정 치과팀장은 “진료 대상자로 확인되면 감염증질환 검사(혈액검사와 엑스선 검사)를 받은 뒤 치료 일정을 정하고 치료를 시작한다”며, “틀니(전체 틀니, 부분 틀니) 장착을 위한 발치와 신경치료도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단, 본원 치과에서는 임플란트와 심미적 보철치료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문 진료도 실시 예정

본원은 서울역 앞으로 이전해서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복약 지도 등을 포함한

방문 사업을 확대 개편해 계속할 계획이다.

본원에서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거동 불편한 환자나 중증 환자, 장애인 환자들이 병을 키우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방문해 진료하고 돌보는 방문 사업을 진행해 왔다.

본원 김정미 방문진료팀장은 “영등포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수차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와 처방을 하고, 필요시 큰 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했다”고 말하고, “규모가 더 큰 서울역 쪽방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살펴서 고립, 은둔형 환자, 정신 질환 대상자들도 쉽게 방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요셉의원 이전 안내

그동안 저희 요셉의원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30년 가까이 영등포 쪽방촌에서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해 온 요셉의원이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에 따라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하여
다시 진료를 시작합니다.
이는 오로지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꾸준한 나눔과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진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7월 31일(목)
진료 재개	2025년 8월 1일(금) 오후 1시
병원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89 (서울역 14번 출구)
문의 전화	02) 2634-1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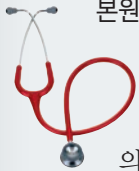
요셉의원 지도 보기

요셉의원 오시는 길



질병 조기 발견 위해 종합병원 수준 무료 건강검진 실시

암 발견하면 상급 병원 치료 주선



본원에서는 진료비가 없는 가난한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만성 질환이나 악성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 회복에 필요한 추가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환자들을 위해 본원에서는 2024년 6월부터 새로 등록하는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적극 실시해 암이나 중증 감염질환자를 다수 발견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검사로는 초음파 검사, 심전도 검사, 엑스선 검사, 혈액검사, 소변

검사 등을 들 수 있다. 본원이 자체 장비를 이용해 검사 당일엔 결과는 볼 수 있는 검사는 ▲혈당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 검사 ▲고지혈증 검사 ▲통풍 검사 ▲B형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 ▲매독 검사 ▲HIV 검사 ▲빈혈 검사 ▲염증 검사 등이다.

처음 요셉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종합건강검진 수준의 혈액검사[자체 시행 검사 + 암표지자검사(AFP, CEA, PSA, CA19-9, CA125)], 갑상선검사(T3, TSH, Free T4)와 소변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환자는 기본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정밀 혈액검사(B형 간염 정



영상의학실에서 엑스선 촬영을 위해 환자의 자세를 바로잡고 있다.
사진 아래는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 모습.

량 PCR검사/C형 간염 정량 PCR검사/매독정밀검사/HIV 정밀검사 등), 결핵 검사, 미생물배양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검사 전문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에 의뢰해 검사를 시행한다. 이 같은 외부 의뢰 검사는 결과가 나오는데 2~6일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첫 내원 환자는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본원에 와서 검

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다.

전체 검진 결과는 본원 고영초 원장이 환자와 직접 대면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 1차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외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CT,

MRI, 내시경, 초음파 등)를 받게 한다. 여기에 드는 본인 부담 검사비는 모두 요셉의원에서 부담하며, 검사 후 수술이 필요하면 후원금과 안전망 기금을 활용해 환자를 돕고 있다.

본원 김재근 의료사업실장은 “본원을 찾는 환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신의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기 힘들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본원에서 시행하는 종합검진을 적극 활용해 건강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

쪽방촌 향기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생각하는 요셉의원

“저는 지금 ‘작고 소중한’ 요셉의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과 돌아가신 선우경식 원장님이 만들어놓으신 배려와 나눔이 함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셉의원 신경외과에 의료 봉사를 나오고 있는 신일영 프란치스코입니다. 최근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짧은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외국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국에 있는 이름난 성지를 방문하는 것은 신자라면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고, 이런 순례 여행은 매우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바쁜 의사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영적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에 나름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번 산티아고 성지순례는 희년(성경에 명시된 규정으로, 현재는 25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해)을 맞이하여 더욱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순례길을 걸으며 만난 수많은 순례자들은 각자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나눈 대화와 함께한 침묵의 시간은 저에게 또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순례를 앞두고 문득 들었던 느낌은, 순례자의 마음은 장소를 불문하고 주님 곁에서 봉사하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에는 장소나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성지는 거창한 건물이나 유명한 장소만이 아니라, 사랑과 봉사가 실천되는 곳 어디나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길은 바쁜 날과 한적한 날을 모두 아우르며 최선을 다하는 순례길로 정했습니다.



신일영

본원 신경외과 봉사의
동탄성심병원 교수

산티아고는 많은 이들이 찾는 ‘큰 순례길’인 반면에, 우리의 요셉의원은 ‘작고 소박한’ 길이지만 아름다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설립자 선우경식 원장님의 노고에 그런 순례의 길을 만들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 원장님께서는 단순히 의료기관을 설립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치유와 희망의 공간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영등포역 앞의 작은 골목길을 지나는 이 순간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작은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달 찾아오는 저의 자그마한 순

례라는 느낌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작은 능력을 빌려 조금씩 나누어 보자는 이 길은 진정 아름다운 순례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지금 ‘작고 소중한’ 요셉의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과 돌아가신 선우경식 원장님이 만들어놓으신 배려와 나눔이 함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봉사는 모든 분의 헌신도 전혀 작지 않은 순례의 여정이리라 믿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 모든 이에게 이곳은 작은 성지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며, 오늘도 병원으로 향하는 길을 조용히 걸어갑니다.+



2025년 상반기 재단 워크숍 실시

서울역 앞으로의 이전 앞두고 부서별 업무 점검



병원 이전을 앞두고 주요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마친 뒤 단체 사진 촬영.

요셉나눔재단 2025년 상반기 워크숍이 5월 1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본원 3층 경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역 앞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전 부서가 한 자리에 모여 팀별 업무 계획을 공

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 토의에서는 의료부문(의료사업실)과 행정부문(총무, 전산, 홍보, 자원봉사, 영성구현 등)으로 나누어 그룹 토의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각 부서별 토의 결과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 토의 후 이어진 총평 시간에는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고영초 병원장이 함께 참여해 전체 발표 내용을 종합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력과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내 개인 의견 속에 하느님의 뜻이 함께 담긴 유익한 토론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선우경식 선생님의 뜻이 이번 이전을 통해서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숍은 각 부서의 업무를 전체 병원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는 유익한 계기가 됐다. +

2025년도 제1차 재단 임시 이사회 개최

2025년도 요셉나눔재단 제1차 임시 이사회가 6월 24일(화) 오후 5시, 서울 중구 명동 서울대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고영초 병원장을 비롯한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총 13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참석했다.

참석 이사진은 ▲이사 중임 ▲치과병원 개설 ▲정관상 주사무소 변경 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실무팀은 요셉의원 서울역 이전 관련 진행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보고를 진행했다. 금년 2월에 시작한 서울역 요셉빌딩 인테리어



공사는 6월 중순 기준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7월 17일 공사 완료 후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된다.

이전 일정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행정 부서가 먼저 이전을 시작하고, 7월 18일 영등포 병원 진료를 종료한 후 21일부터 본격적인 병원 이사짐 정리

가 진행된다. 7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이사업체를 통한 장비 해체 및 설치가 이뤄지며, 7월 말까지 모든 정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진료 시뮬레이션과 환자 동선을 점검하고, 8월 1일부터 서울역 요셉빌딩에서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다.

실무팀은 이와 함께 외래환자, 자원봉사자, 쪽방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 소식지, 기념품 등 다양한 이전 안내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서울역 새 병원이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력해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본원 도보 성지순례에 20명 참여



서울 서소문 순교성지 앞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일행.

본원은 지난 5월 10일 원내 동호회인 요셉산악회 주관으로 ‘포도청 순교자를 위해 기도하며 걷는 도보 성지 순례’ 행사를 열었다. 윤주현 엘리사벳 성지 해설사의 안내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고영초 병원장 등 요셉의원 10명, 국성회 후원회원 10명 등 모두 20명이 참가해 순교자들의 영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비가 오는 곳은 날씨임에도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출발해 서소문순교성지, 경기감영터(5호선 서대문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 형조터(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 우포도청터(광화문우체국), 전옥서터(종각역 6번 출구), 의금부터(종각역 1번 출구), 좌포도청터(옛 단성사), 그리고 종로성당까지 이어지는 세 시간에 걸친 도보 순례를 마무리했다.

후쿠자와 나미 수녀, 7년 여 봉사 마감

지난 2017년 12월부터 본원에서 봉사한 후쿠자와 나미 수녀가 4월 30일자로 8년 가까운 봉사 생활을 마감했다. 일본 출신이면서, 프랑스에 본원을 둔 느베르 수녀회 소속인 나미 수녀는 본원 치과에서 정직원으로 4년 7개월, 간호팀에서 2년 6개월 동안 주3일 파트 타임

으로 헌신했다. 항상 밝은 미소와 깔끔한 일처리로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했던 나미 수녀는, 프랑스어를 잘해 아프리카 출신 환자들의 통역을 돕기도 했다. 나미 수녀는 4월 29일 송별 미사 말미에 아래와 같은 송별시를 통해 요셉의원 모든 가족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구했다.



하느님 아버지, ‘가난하고 병든 모습,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환자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뵈고 친절함 손길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요셉 의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중심을 두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럴 때마다 환자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지는 않았을까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하느님 아버지, 요셉의원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어여뵈 여기시며 당신의 사랑과 은총 속에 머무르도록 허락하소서. 요셉의원의 환자와 자원봉사자, 은인, 직원들을 모두 ‘보시니 좋았다’ 하신 당신의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 당신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허락하소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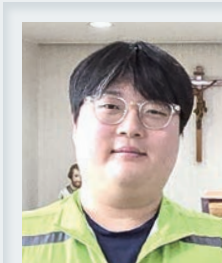
“질은 어둠이 닥쳐와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찾아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



김선영 간호팀장이 나미 수녀(왼쪽)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신학생 현장 체험 소감문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전 호 라파엘
의정부 교구 신학생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구 원당성당 전호 라파엘 신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1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곳 요셉의원에서 ‘수련의 해’ 국내 현장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5개월간 요셉의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저의 부족한 점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부족한 점 가운데서 많이 배우고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요셉의원은 부모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고,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자식에게 어머니는 품을 내어주고, 아버지는 등을 내어준다는 표현처럼 요셉의원은 내원하는 환자들, 쪽방촌 주민들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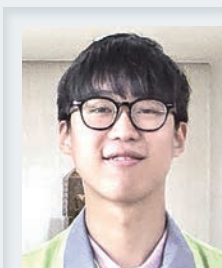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것처럼, 또 비록 자식이 부모가 내어주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계속하여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그 존재만으로 힘이 되어주듯이, 요셉의원은 존재만으로도 환자들과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요셉의원에서 봉사하면서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감정과 경험을 잘 간직하여, 항상 깨어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원에서 실습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형제들에게 향하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요셉의원에서는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김희준 빅토르
서울대교구 신학생

지난 1월 초 요셉의원에 처음 왔을 때에는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공간과 사람들, 상황들. 이런 곳에서 어떻게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전에는 말도 잘 못하고, 겁도 많아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원에서 일을 하며 다섯 달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점차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갈 때에 용기가 생기고, 말도 조리있게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자 분명히 요셉의원의 일에는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저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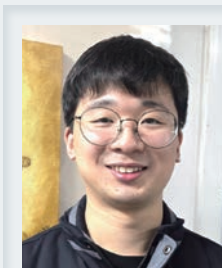
또한 제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너지거나 종종 망각하던 성령의 활동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곳 주민분들을 통하여 자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놀라웠고, 하느님께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신학생의 길을 선택한 저로서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서도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요셉의원에서의 실습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종종 여러 단체에서 봉사를 할 때에는 단순히 봉사자와 피봉사자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봤다면, 요셉의원에서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분들과 소통할 때 행복해지는 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며 주님께서 분명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섬기는 삶’ 시작



강대건 대건 안드레아
전주교구 신학생

저는 요셉의원에서 2월 3일~4월 12일까지 현장실습을 했던 전주교구 강대건(대건 안드레아) 신학생입니다. 실습 중 제가 체험했던 인상 깊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3월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봉사자 선생님을 따라 쪽방촌 방문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방된 약을 확인하고 안부를 묻는 등 평소처럼 방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분께서 “안락사를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안 시켜준다. 죽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등 삶을 끝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분께 안락사는 교회에서 반대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런 상황에 놓인 분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삶에 대한 집착, 욕구는 모든 생명체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도 당연히 삶에 대한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생을 포기하려는 선택에는 많은 고민과 고뇌가 요구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나,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웃의 고통을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부족하다, 포기할 마음으로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아픔,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당시 그분이 저에게 원했던 답은 교회의 가르침이나 충고가 아닌 따뜻한 한 마디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과 눈을 맞추며 낯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치유를,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가엾게 여김’이야말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제가 지녀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본원에서 3~5개월 동안
현장 체험을 한 전 호, 김희
준, 강대건 신학생.



봉사자 코너



영상 작업하는 김경원 치과 봉사의

“‘좋아하는 일’과 ‘잘 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



영상 작업을 주된 일로 삼고 있으면서, 매주 본원에 치과 봉사를 나오는 김경원 봉사의 진료 장면.

김경원 치과봉사의는 요즘 ‘좋아하는 일’과 ‘잘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치과 의사 업무가 자신에게 정말 잘 맞고 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고교시절부터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 편집하는 일이 너무 좋아 지금은 영화 연출의 꿈을 삶의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올해에는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할 생각입니다. 얼마 전 영화제 출품작 작업을 끝냈고, 개인적으로 요셉의원 서울역 이전과 관련된 기록물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 작업이 치과 의사 일을 접을 만큼 충분한 성취가 있을 것인지 비교하며 고민 중입니다.”

그는, 영상 쪽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본원 치과 봉사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여름부터 치과 봉사를 시작한 김 봉사의는 KBS에서 예전에 방영한 ‘다큐3일’(쪽방촌의 기적)을 보고 봉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너무 감명깊게 봤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나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요셉의원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달 걸려서 위 아래 어금니쪽에 8개의 틀니를 해드렸죠.”

다른 한 환자는 김 봉사의의 성실한 면모를 가늠케 하는 사례. 올 설 명절 3주 전에 치료를 시작한 이 환자는 전체 치아의 절반이 다 끊어져있었다. 신경치료와 보철을 한 다음 틀니를 만들어 끼워넣으려면 길게는 두 달이 필요했다.

“설날 제대로 식사를 하시도록 하기 위해 저녁 진료 하시는 선생님들께 부탁해 치과 진료의자를 빌리고 봉사 외 시간에 두 차례 정도 나와서 진료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현재 잘 쓰고 계셔서 자그마한 보람을 느낍니다.”

근무하던 치과 그만두고 영상 일에 매진 중

그가 본격적으로 영상 일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7년 전 공익근무요원으로 있을 때였다. 당시 전남 광주에 영상위원회가 생기면서 마침 시나리오를 공모하자 그는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 제출해 당선이 됐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어 광주영화제에서 상영했다.



서울역 이전을 앞둔 본원의 영등포 현재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있는 김 봉사의.

“로맨틱 코미디를 주제로 한 작품인데, 직접 촬영과 편집까지 하고 사운드만 서울에서 작업했어요. 주위에서 작품이 좋다, 재미있다고 칭찬해 주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작품에 불만이 많았죠.”

이 시절 그는 영상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음악 행사 등을 촬영, 편집해 유튜브에 소개했다. 이후 복학해 치대를 졸업한 뒤 부천의 한 치과병원에 봉직의로 근무하면

서도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영화학교에 다녔다. 여기서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의기투합해 최근에 영화제에 출품할 작품을 하나 완성했다.

“비슷한 연배 6명 정도가 모여 선배 촬영 감독을 중심으로 각자가 맡은 촬영과 편집, 사운드 등을 나눠서 작업했습니다. 저희같은 독립영화인들은 상업 영화인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최종 목표는 연출을 하는 것이어서 포트폴리오도 쌓고 현장 경험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와 영상 작업을 겸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일의 속성상 겸업은 쉽지 않아서 좋아했던 치과병원을 지난 3월 퇴직했다”고 말했다.

영등포 요셉의원 다큐로 남길 계획

그는 얼마 전 본원이 7월 중순쯤 서울역 부근 동자동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의 영등포 요셉의원 모습을 다큐로 찍어 기록할 계획을 세웠다. 본원이 신림동에서 영등포로 이전한 뒤 이전 신림동에서의 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어서 본원으로서의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그는 “요셉의원은 우리 나라에서 찾아보기 드문, 너무 소중한 곳이어서 이곳 기록을 잘 정리해 젊은 봉사자들에게 요셉의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하고 싶다”며, “이를 바탕으로 설립자 선우경식 선생님과 요셉의원의 아름다운 뜻이 널리 퍼져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새 희망을 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

환자스토리

70대에 술 끊고 새 삶 시작한 한장섭 씨

“남은 여생, 마음 열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73세의 한장섭 씨는 2년 전부터 본원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과 안과 질환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수녀들의 따뜻한 손길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복지 지원을 통해, 절망의 나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또 하나의 회복 사례로 꼽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술에

의지하며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가오는 성탄절 세례식을 앞두고, 매주 토요일마다 정성껏 교리 공부에 참여하고 있다. 또 수요일마다

열리는 사랑의 수녀회 성경공부와 찬양 모임에서는 멋진 기타 연주로 분위기를 밝게 하고 있다.

“두 달 전쯤 꿈을 꾸었는데, 누군가 ‘장섭아, 일어나거라’ 하며 구부러진 지팡이를 건네주어 그 지팡이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꿈을 깨고 나니 이상하게도 힘이 나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수녀님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라고 하



서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씨는 중부 지방의 대도시에서 음악 교사인 아버지, 미술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다. 운동을 좋아하는 ‘착한 아들’이었고, 초등학교 시절엔 육상 선수, 중·고교 시절에는 태권도·복싱·유도에 심취했다. 자연스레 학업은 뒷전이 되었고, 부모의 꾸지람과 갈등 끝에 대학 진학도 포기했다.

“군 제대 후에는 운동 사범 둘과 함께 종합체육관을 열어 5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 무렵 옆집에 살던 처녀와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었죠. 하지만 아내는 체육관 일을 좋아하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고, 그후 장판 가게와 고깃집도 해봤지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불행은 연이어 찾아왔다. 장성한 아들이 여름 휴가 중 수영을 하다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내마저 곁을 떠났다. 혼자 남은 그는 술에 기대며 10년 넘게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다.

“기차가 철교를 지날 때면, 그냥 떨어져 버릴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결국 그는 60대에 서울로 올라왔다. 아파트 청소, 건물 바닥 광내기 등으로 생계를 꾸렸지만 술을 끊지 못했고,



간경화로 병원에 다섯 차례 입원했다. 이후 김포의 한 요양원에서 2년간 치료를 받으며 지냈다.

요양원을 나와 영등포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삶에 대한 회의가 계속돼 한강에 몸을 던지려는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 그때 한 씨를 관찰하던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보라매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후 ‘그냥 술에 취해 죽자’는 심정으로 하루 서너 병의 소주를 마시며 쓰러져 지내다 결국 욕창까지 생겼다. 당시 그를 발견한 사랑의 수녀회 수녀가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왔더니, 수녀님이 그렇게 저저분하던 방을 말끔히 정리해 놓으셨더군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 술을 끊기로 마음먹었고, 그때부터 교리 공부와 수요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모임에서는 중학교 시절 배운 기타 실력이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세례를 받는다는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남은 생은 마음을 열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성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

후원의 손길



SNS 통해 약 정보 전달하는 이수찬 약사

“무료 급식소 운영하며 음식 나누는 모습 그려봅니다”

지난 5월 본원에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한 이수찬 후원자는 약학대 재학 시절부터 요셉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 때 지금의 아내와 연애했던 시절 아내가 요셉 의원에서 약제 보조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도 요셉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되었다”며,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해주시는 봉사자님들을 생각하며, 작지만 동참

대 졸업 후 2년 반 정도 약사로 일하다 현재는 약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약사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약사임당’이라는 채널로서 현재 15만 팔로워와 소통 중이다. SNS 상에서 만만찮은 입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원자 역시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황이 어려웠다. 첫 6개월을 운영했을 때 팔로워가 고작 700명이었다고 한다.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했다”고 전했다.

이 후원자는 약



'약사임당'이라는 약 정보 SNS를 운영하며, 장차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 보겠다는 포부를 안고 있는 이수찬 씨 부부.

“그때는 참 어색한 얼굴로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 스스로를 내려놓고 좀 더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 팔로워가 금세 쪽쪽 늘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팔로워들이 고마워 팔로워들의 질문에 더욱 세심하고 진심이 담긴 답변을 달았다. 요즘은 하루에 4~6시간가량을 상담하며 자신이 선별한 영양제를 판매하지만, 판매에 대한 기쁨보다는 상담 그 자체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프리랜서 사업가로서 그의 목표는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을 돕는 신약이나 혈당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일이다. 어머니가 당뇨를 앓고 있어 생긴 꿈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에 성공해 이윤이 나면 밥차(무료 급식소)를 운영해 사회 환원하자는 목표도 갖고 있다.

약사인 아내도 남편의 이런 뜻에 동참해 조만간 다니는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일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내도 약사니까 여러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며 힘을 보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적 성취를 이타적인 자선과 연결짓는 것은 천주교 신자인 부모님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와 융화하려고 배웠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어릴 때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까요. 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느리더라도 꾸준히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는 “언젠가 제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푸고, 찾아오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기다려진다”며 활짝 웃었다.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5년 4월~5월)

■ 요셉나눔재단

- 강민서 ●강병덕 ●강석영 ●강신조 ●공소현 ●곽성진 ●곽장호 ●곽혜정 ●권혁미 ●김기호 ●김도원 ●김령아 ●김상대
- 김상민 ●김선아 ●김선주 ●김세진 ●김수정 ●김승조 ●김안나 ●김양숙 ●김영근 ●김옥연 ●김우기 ●김윤기 ●김재학
- 김조자 ●김주현 ●김지민 ●김지홍 ●김진희 ●김태성 ●김토마스동완 ●김현미 ●김현정 ●김현주 ●김혜숙 ●김혜원 ●나혜주
- 남순천 ●류동주 ●맹석영스테파노 ●민병은 ●박기호 ●박로사 ●박병숙 ●박상모 ●박성준 ●박안나 ●박열매 ●박영민 ●박태준
- 박하영 ●박현숙 ●박혜상 ●박희빈 ●배석준 ●배유란 ●배지영 ●배진혜 ●백혜인 ●서기원 ●서수정 ●설구호 ●성봉례
- 손미정 ●손인기 ●손지인스텔라 ●신민철 ●신혜영 ●신화식 ●심글로리아 ●안용진 ●양수연 ●양승희 ●양진석 ●어정화
- 오명선 ●오현정 ●유지연 ●유지희 ●윤분선 ●윤세진·하두용·주요한·권순호부제 ●윤소영 ●윤순 ●윤지산 ●이경욱 ●이광호
- 이금재신부 ●이기리 ●이도경 ●이동주 ●이상준 ●이석준 ●이성근 ●이성훈 ●이세환 ●이소이 ●이순덕 ●이승연 ●이양주
- 이 연 ●이원재 ●이원창 ●이원현 ●이유안 ●이지현 ●이지혜 ●이필선 ●이현주 ●이홍재 ●임수경 ●임지우 ●임홍균 ●장혜숙
- 전민영 ●전수림 ●전용준 ●정연수 ●정은주 ●정의윤 ●정재경 ●정창영 ●조민경 ●조양순 ●조예식 ●조위현 ●조윤경



- 조윤수 ● 조은희 ● 조이서 ● 주미려 ● 지효지엔 ● 차태원 ● 채상희
- 채승민 ● 채양화 ● 최복기 ● 최봉순 ● 최 숙 ● 최슬기 ● 최정희
- 최호선 ● 탁계래 ● 허소라 ● 허희숙 ● 홍혜정

■ 요셉의원

- 글라라 ● 김건호 ● 김남지 ● 박신윤 ● 박희경 ● 손지훈 ● 양영철 ● 이도운
- 이동훈 ● 이민자 ● 심의학 ● 이인섭신부 ● 임승균 ● 전홍자 ● 정남진
- 정두성 ● 최영길 ● 허경자마리아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5년 4월~5월)

■ 요셉나눔재단

- 두산건설팅공인중개사 ● 전주교구성소국 ● (주)서암 ● (주)장안 ● 케골회
- 함은세친구들

■ 요셉의원

- 디아이디시스템(주)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5년 4월~5월)

- 강신걸·김선화(피스 오브 헤븐) : 유기농빵 184봉지 ● 박희경 : 멸치 10.5kg
- 사회복지법인 행복공학재단(김진석) : 쌀 20kg ● 우봉균 니콜라오 : 쌀 10포(200kg)
- 익명 : 빵 108개, 쌀 40kg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제 일동 : 혼합과일 2상자 ● 행선당(괴산군) : 야채 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5년 4월~5월)

- 김 * 성(도봉구) : 의류 1상자 ● 김영주 모니카 : 양말 8컬레 ● 석관동성당 : 의류, 잡화 6상자 ●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노동조합 : 양말 78컬레 ● 안 * 남(진주시) : 의류 1상자 ● 안 * 모(중구 신당동) : 의류 1상자 ● 안드레아아트 : 의류 1상자 ● 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회 : 의류 17상자 ● 윤 * 숙(화성시) : 의류 1상자 ● 이 * 늘(안양시) : 의류 1상자 ● 이 * 은(서초구) : 의류, 패션잡화 1상자 ● 이 * 익(송파구) : 의류 1상자 ● 장 ** (용인시) : 의류 1상자 ● 장 * 기(인천) : 의류 1상자 ● 주 * 수(여의도성당) : 의류, 패션잡화 1상자(신발 3컬레 포함)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5년 4월~5월)

- 제일한방 : 한방파프 ● 하나제약 : 암로디핀 5mg 외 33건 ● 한국유니온제약 : 시타유니정 외 1건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5년 4월~5월)

- 하마리아 : 삼푸 2병, 치약 1개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요셉의원 인사 발령

- 의료사업실 치과팀장 : 이민경
 - 총무실 안내팀원 : 정재진
- 이상 6월2일부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조규석(일반외과) 황유선(가정의학과)

- 약 사 : 박은숙

- 간호사 : 박영숙(간호팀) 최복순(방문진료팀)

- 방사선사 : 임준수

- 일반 봉사

[간호팀] 1명

[약제팀] 덕성여대 8명 동국대 6명
숙명여대 3명 이화여대 3명

[환자상담] 1명

[아웃리치] 8명

[방문사업] 3명

[목요급식봉사] 6명

[물품정리] 3명

[청소봉사] 중앙대, 반포성당 등 14명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영등포 쪽방 주민
- 종로 쪽방 주민
- 사랑의 집
- 수지 성모요양원
- 잔주강의 집
- 하늘자리평화의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5년 4월	1,741 명
2025년 5월	1,451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 (2025년 5월 말 현재)

770,941 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04~05



필리핀요셉의원



김다술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오산 루카회 등 어린이날 의료봉사

어린이 환자 포함 467명 진료하고, 정서적 교류에도 기여



루카회 최현철 회장이 내과 진료 중 초음파 검사를 하는 모습(왼쪽)과, 치과 진료 장면(오른쪽).

한국의 오산 루카회, '나누며 사는 오산사람들', 그리고 서울 요셉의원 의료봉사자 최성욱 선생 일행이 필리핀 말라본 요셉의원을 찾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 기획됐다. 필리핀에는 어린이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뜻깊은 나눔의 의미를 지녔다.

모두 14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이번 일정에는 루카회 소속 8명, 나누며 사는 오산사람들 1명, 최성욱 선생 일행 5명이 함께했다. 봉사단체 '나누며 사는 오산사람들'은 루카회 권혁용 선생이 설립한 단체로,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일부 의료진은 자녀들과 함께 본원을 방문해, 이곳 아이들과 봉사자 자녀들은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필리핀 선거 기간과 겹친 일정이었던 만큼,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 진료는 생략되고 필리핀 요셉의원 내부에서 이틀간 집중 진료가 이뤄졌다. 진료는

내과, 치과, 외과, 한의과로 나뉘어 진행됐고, 엑스선 촬영과 초음파 장비도 적극 활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실시했다. 총 진료 인원은 467명에 달했으며, 특히 어린이 환자들이 많아 봉사의 의미가 더욱 살아났다.

이번 진료에는 필리핀 요셉의원 의무원장 에블린 선생도 함께 참여하여 현지 의료진과 한국 봉사단 간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었다. 진료 외에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놀이 활동과 간단한 건강교육도 진행돼, 단순한 의학적 도움을 넘어 정서적 교류와 공동체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자리로 이어졌다.

루카회와 '나누며 사는 오산사람들', 요셉의원 의료봉사자 최성욱 선생팀과 필리핀 요셉의원이 힘을 모은 이번 봉사는 국경을 넘어선 아름다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하고 헌신한 이들의 만남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주었으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대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



최성욱 원장(왼쪽)의 외과 진료 모습.



복음 묵상

'인간으로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일상에는 분명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저 돈을 주는 도움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안정을 위한 도움입니다. 더러운 물로 몸을 씻지 않아도 되고, 비용 걱정으로 병을 키우지 않아도 되며, 붕괴 직전의 집이 아니라 안전한 집에서 잠에 들 수 있는 삶을 위해 필리핀 요셉의원이 존재합니다.

부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교 대성당에서 저녁기도를 끝내고 돌아오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기숙사인 수덕관에 도착할 때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수덕관 앞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비에 젖은 물골로, 기숙사로 향하고 있을 때 누군가 폭삭 젖은 김에 그냥 밖에서 비를 맞으며 동기 부제들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물장난을 하기도 하고, 비에 잠긴 마당에 누워서 침병거리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부제들만 할 수 있었던 잠깐의 일탈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우기가 찾아오고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그때의 일이 종종 생각나곤 합니다. 특히 비가 올 때마다 도로가 잠기는데, 아이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물장구를 치며 놀곤 합니다. 이 광경이 그 폭우가 내리던 날의 동기들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추억과 필리핀 아이들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를 맞으며 놀았던 옛 추억은 잠깐의 일탈이었지만, 지금 비를 맞으며 놀고 있는 이곳 아이들에게 이 물놀이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필리핀 요셉의원 근처에는 시설이 조금 좋은 야외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 유지분이 운영하는 곳인데 주말이면 제법 거리가 있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놀고 갑니다. 그러나 정작 동네 주민들은 방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근처 사람들에게는 꽤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까닭에 수영장에 갈 수 없는 동네 아이들은 비가 폭포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잠긴 도로를 수영장 삼아 놀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은 형태와 모습이 다양할 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난



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참고 사는 것이지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참는 이들은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청구서가 감당되지 않으니 고통을 감내할 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참고 살기도 하고,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표를 위해 현재를 감내하고 참

고 사는 것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존중받지 못해서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해 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잘 살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본인의 게으름이나 잘못이 아니라 태생부터 당연하게 물려받은 가난을 이유로 앞으로 나아갈 기회마저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만 지원을 받으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고, 노력을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물놀이를 하고 싶지만 수영장에는 갈 수가 없어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더러운 물로 노는 삶, 비가 온 김에 온 몸에 비누칠을 하고 겨우 샤워를 하는 삶, 이가 썩었지만 치료할 돈이 없어서 의료팀이 왔을 때 앞니를 그냥 빼달라고 하는 고등학생, 살을 빼기 위해 조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노동으로 살이 찌울 수 없는 몸을 갖게 되는 이들. 이들의 일상에는 분명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저 돈을 주는 도움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안정을 위한 도움입니다. 더러운 물로 몸을 씻지 않아도 되고, 비용 걱정으로 병을 키우지 않아도 되며, 붕괴 직전의 집이 아니라 안전한 집에서 잠에 들 수 있는 삶을 위해 필리핀 요셉의원이 존재합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새 학기 준비하는 장학생들, 방학 기간에도 활발한 활동



학용품을 한아름 받은 초등학교 장학생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지난 4월 말 필리핀 학제가 종료되고, 새 학년을 맞이하기 위한 방학에 들어갔다. 요셉의원 장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방학을 맞이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생 교사들은 졸업식 및 종업식 준비, 새 학기 수업 기획 등으로 인해 여전히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6월 1일에는 요셉의원에서 장학생 월례 미사와 종업식, 졸업식이 열렸다. 이번 미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장학 프로그램 출석률이 높은 학생들과 학교에서 우수한 학업 성과를 거둔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도 진행했다. 특히 12학년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한 학생이 전체 장학생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며 최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축하와 선물도 함께 전달되었다.

장학 프로그램 운영팀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용품 패키지를 준비해 장학생 전원에게 배포했다. 이 패키지에는 필기구, 공책, 책가방, 문구류 등이 포함되었으며 새 학기 학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학용품으로 준비했다.

한편, 이번 학기를 끝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된 대학생 ‘에밀’은 미사 후 참석자들에게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전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장학 혜택을 받아온 장기 장학생으로서 요셉의원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변화를 체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작별인사를 통해 후배 장학생들에게 성실함과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문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모의 헌신이 자녀의 성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며,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끝까지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에밀의 인사말은 진정성과 감동을 함께 담아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장학생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에밀(왼쪽에서 네 번째)과 대학생 교사 회원들.

요셉의원 김다솔 원장신부는 졸업생과 장학생들에게 “요셉의원 장학 프로그램이 여러분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각자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 학기 준비를 잘하자”고 당부 인사를 전했다. +

요셉의원, 지역사회 협력 확대

‘위기 아동·노인·장애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필리핀 요셉의원이 외부 진료 활동을 한층 더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매월 한 차례 공소, 본당, 교구 까리마스를 통해 교도소 및 지역 공동체를 방문하며 외부 진료를 이어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빈도를 월 2회로 늘리

고 대상 또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번 확장 계획은 단순한 진료 횟수 증가를 넘어, 요셉의원이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요셉의원이 처음으로 장애인과 행려자 보호시설에 방문 진료를 할 예정이며, 그 첫 대상은 ‘버팀목이 되는 집 - 필리핀 어린이들의 보금자리’라고 불리는 바하이 산디간(Bahay Sandigan - Tahanan ng Batang Pinoy)이라는 보호 시설이다.



어린이 보호시설 '바하이 산디간' 입구 모습.

이 시설은 원래 6세부터 18세 미만의 유기·방임·학대 피해 아동(CAR)을 위한 임시 보호 공간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몇 년간 길에서 구조된 노인과 장애 아동(PWD)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바하이 산디간은 이들을 함께 보호하게 되었고, 돌봄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문제는 돌봄 대상은 늘어났으나 바하이 산디간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의료 자원이 거의 없고, 정신적·심리적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요셉의원의 방문 진료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요셉의원 장학생 출신 사회복지사인 와이어스 가보나(Wyeth Gabona)가 연결 고리가 되었다. 현재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가보나는 요셉의원에 바하이 산디간을 소개하고, 시설 내 이용자들이 요셉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요셉의원이 수행 중인 식료품 지원 사업에도 해당 시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행정적·실무적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셉의원 김다솔 원장신부는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거나 방치된 사람들을 위한 진료는 단순한 의료 활동을 넘어 요셉의원이 지향하는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이번 방문 진료에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신부는 이어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는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주목할 것”이라며, 지역 내 다른 복지기관들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요셉의원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환자를 기다리는 진료소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진료,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품는 진료소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2025년 4월~5월 신규 후원 회원

- 권호은 ● 민병전 ● 박준혁 ● 변혜순 ● 신 웅
- 이병곤 ● 익명

+ 2025년 4월~5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1,422명 ● 급식 596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 (2025년 5월 현재)

- 진료 111,893명 ● 급식 496,063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17:10 요셉의원 내 3층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2025.04~05

홀씨

국제성경시도직후원회 소식지



국제성경시도직후원회(국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홍근표 지도신부 강론



‘가장 짧은 기도문 ‘아멘’의 의미’

신명기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즉 아멘은 ‘응답’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에는 ‘주님을 찬미하여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멘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묵시록에서 예수님을 ‘아멘이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아멘은 ‘신앙고백’을 의미합니다.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아멘’은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짧은 기도문, 그러나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오롯이 내어드리는 진정한 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0일(화) 국성회 후원회 미사 강론에서)



[선교 현장에서 온 편지] 멕시코 므스떼끼야에서 성경공부 지원 요청

“하느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국성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이하 복자회) 소속 허은경 엘리사벳 수녀입니다.

저는 현재 멕시코 와하까 주 므스떼끼야에서 선교 중입니다. 저희 복자회는 1987년 므스떼끼야에서 첫 선교를 시작했고, 본당 관할 공소 사목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지침 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시티에 산 펠리페 데 헤수스 수도원을 설립하여 선교사로 파견된 수녀들 교육과 현지 수녀들의 지속적 양성을 위한 선교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선교 중인 므스떼끼야 산타 카타리나 본당과 6개 공소를 중심으로 2025년과 2026년 두 해에 걸쳐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경공부 및 읽기 모임을 늘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집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교리교실 학생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교리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란 게 개신교 신자에게서 들었거나, 혹은 신자끼리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임지에서 현지 주민들과 하느님 이야기를 나누며, 하느님의 말씀을 주민들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책상이 없이 긴 나무의자나 바닥에서 글을 쓰고 색칠하며 교리를 배웁니다.

주민들은 오래된 구판 성경 혹은 개신교에서 나눠준 성경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격이 비싸다 보니 정식 가톨릭 성경이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번역본으로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가톨릭 성경이 이곳 신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곳 현지인들은 옥수수 농사를 짓고, 열대 과일을 팔아



어린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습.

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살기에도 힘겹고 더운 열대지역의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을 새겨서 하느님의 지혜로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이 교우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중심에 하느님 말씀을 심고,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책임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청하며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멕시코에서 허은경 엘리사벳 수녀 드림

☞ 2025년 3월 14일 허은경 수녀에게 믹스떼끼야 주민 신자를 위한 스페인어 성경 120권, 청소년 스페인어 성경 200권을 후원하였습니다.(202,000페소=10,100달러=14,830,000원).

[선교 현장에서 온 편지] 과테말라에서 소공동체 모임 위한 지원 요청

“신자 가정에 성경이 아예 없거나, 개신교 성경 쓰고 있어요”

국성회 후원회원 여러분,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시에서 선교 중인 인천교구 파견 평신도 선교사 박효원 도로테아입니다. 저는 현재 수도의 빈민 지역 플로리다에 위치한 누에스트라 세뇨라 델 로사리오 본당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부를 마친 뒤 각자의 공동체로 돌아가 성경 나눔을 이끌 예정입니다.

빈민 지역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본당 신부님께 청을 드려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막상 제대로 된 성경을 지니지 못해 성경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 성경이 한 권도 비치되어 있지 못한 경우도 있고,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톨릭 성경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가정마다 방문하여 성경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성경으로 가톨릭 성경 공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첫영성체 교리반 아이들이나 견진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가져온 성경 중 약 30%가 개신교 성경입니다. 가톨릭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나머지 신자들도, 번역에 문제가 많지만 저렴하다는 이유로 프랑스어에서 스페인어로 중역한 해적판 성경을 쓰고



박효원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과테말라 플로리다의 누에스트라 세뇨라 델 로사리오 본당 모습.

있습니다.

제대로 인가된 성경으로 공부해야 하지만 신자들의 경제적 사정뿐 아니라 본당의 재정도 풍족하지 못합니다. 8개 구역, 총 50여 개의 소규모 기도 공동체 모임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도 방법과 단체장 성서 공부를 시작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느님을 향한 신앙과 성서에 대한 애정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이들입니다.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성경 공부에 활력을 주고 싶습니다. 가능한 만큼 도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2025년 3월 10일 과테말라에서 박효원 도로테아 평신도 선교사 드림

☞ 2025년 4월 14일 박효원 선교사에게 도시 빈민 신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성경 100권을 후원하였습니다.(\$3,500=5,126,000원).



[가톨릭 상식]

멕시코와 과테말라 가톨릭 교회의 현황과 특징



인신공양 전통을 예수의 성체 성혈과 연결지어 전교

멕시코는 인구의 72%가량이 가톨릭 신자들로, 가톨릭이 종교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스스로 가톨릭 신자임을 밝히고 있으나 미사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멕시코는 스페인 정복자들의 영향으로 가톨릭 문화가 뿌리내렸으며, 중남미 가톨릭 신자들의 주된 공경 대상이자 정신적 지주인 '과달루페의 성모' 발현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과테말라 또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가톨릭이 보급되었으나, 현재는 미국에서 진출한 개신교(주로 오순절교회) 비율이 가톨릭교회의 비율과 거의 비등하다. 마야 원주민 혈통이 개신교 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원주민 문화의 영향으로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가톨릭은 토착문화와 융합된 측면이 많다.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과 과테말라의 마야 문명은 스페인에게 정복되기 전까지 인신공양 행위가 성행했다. 이들 고대국가가 멸망한 후 태양신의 생명력을 위해 제물을 공양한다는 원주민들에게 스



멕시코 가톨릭 본당에서의 미사 장면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 민간에서 숭앙하는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라 산타 무에르테(Nuestra Señora de la Santa Muerte, 이하 산타 무에르테, '우리의 성스러운 죽음의 여인'이라는 뜻)는 중앙아메리카의 전통 신앙과 스페인을 통해 전래한 가톨릭이 혼합되어 생겨난 신앙이다. 당초에는 밤에 위험한 일을 하는 이들을 폭력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성녀로 여겨졌으나, 이 개념은 점차 변질되어 납치나 밀수, 살인이 성공하도록 가호를 청하고, 경찰이나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속설이 생겨났다.

현재 멕시코 가톨릭교회는 산타 무에르테 숭배를 이단, 악마적인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이를 막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과테말라 안띠구아 십자가 언덕 (사진/네이버)

※ 멕시코의 종교 분포(2024년 기준) : 가톨릭(72%), 개신교(5%), 무교(15%), 기타(8%)

※ 과테말라의 종교 분포(2024년 기준) : 가톨릭(40%), 개신교(39%), 무교(19%), 기타 그리스도교(1%), 기타(1%)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5년 4월~5월)

● 강석철 ● 강은영 ● 강정아 ● 강화정 ● 고도원 ● 고동현 ● 고현수 ● 곽순용 ● 곽해숙 ● 구경모 ● 권희백 ● 김경준 ● 김경희 ● 김광자 ● 김금재 ● 김기연 ● 김대곤 ● 김덕순 ● 김동화 ● 김만길 ● 김명숙 ● 김명신 ● 김명희 ● 김미현 ● 김민정 ● 김범준 ● 김병희 ● 김석주 ● 김선자 ● 김성권 ● 김성중 ● 김수미 ● 김수현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재영 ● 김정연 ● 김정임 ● 김진숙 ● 김진우 ● 김태규



- 김태성 ● 김태희 ● 김해숙 ● 김현경 ● 김현숙 ● 김현준 ● 김현호 ● 김형주 ● 김혜숙 ● 김희수 ● 나삼균 ● 도성록 ● 류연자 ● 류지한
- 류혜선 ● 문경호 ● 문순자 ● 박병윤 ● 박성하 ● 박소향 ● 박수진 ● 박언빈 ● 박재우 ● 박창희 ● 박준옥 ● 박향순 ● 박혜숙 ● 박화영
- 박효종 ● 배광익 ● 배보윤 ● 배소영 ● 배창희 ● 백영희 ● 사공일 ● 서현동 ● 서효리 ● 성정인 ● 성효인 ● 손소영 ● 손정애 ● 손필숙
- 손현채 ● 송미경 ● 송보영 ● 송재욱 ● 신해경 ● 심정현 ● 양기라 ● 양영실 ● 양창호 ● 엄옥진 ● 오세형 ● 오소연 ● 오승웅 ● 오영신
- 위원량 ● 유영희 ● 윤소영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창현 ● 이강득 ● 이강림 ● 이건창 ● 이규성 ● 이금희 ● 이미순 ● 이미용
- 이보경 ● 이상현 ● 이석재 ● 이승현 ● 이영희 ● 이용순 ● 이용애 ● 이용우 ● 이원석 ● 이일호 ● 이장순 ● 이재림 ● 이재익 ● 이정희
- 이종대 ● 이종상 ● 이주현 ● 이준호 ● 이중환 ● 이지윤 ● 이진수 ● 이학천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혜순 ● 이혜연 ● 이희우
- 임선영 ● 임옥란 ● 임진수 ● 임태남 ● 장민정 ● 장수진 ● 장이태 ● 전대영 ● 전명희 ● 전성인 ● 전소연 ● 전 숙 ● 전유민 ● 정수자
- 정영길 ● 정영미 ● 정은주 ● 정진영 ● 조경연 ● 조덕순 ● 조무건 ● 조성우 ● 조소연 ● 조주연 ● 조하영 ● 조현순 ● 주현수 ● 진수는
- 최경의 ● 최두혁 ● 최명옥 ● 최영연 ● 최영자 ● 최종숙 ● 하금태 ● 한나진 ● 허 근 ● 허봉희 ● 허순덕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황영희 ● 황태운 ● 황현지 ● 진석실업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2025년 4월~5월)

- 김경식 ● 김원호 ● 박우준 ● 서상범 ● 신현박 ● 오창선 ● 유경춘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최광희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홍근표 ● 익명후원자

+ 신규 후원회원 - 일반(2025년 4월~5월)

- 한옥조 ● 익명 2명(일시적기부하나, 항상감사드립니다)

+ 국성회 후원 방법

1. CMS 신청

-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 신청자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신청자 본인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월 출금액, 출금을 원하시는 날짜(1일/10일/25일)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와 은행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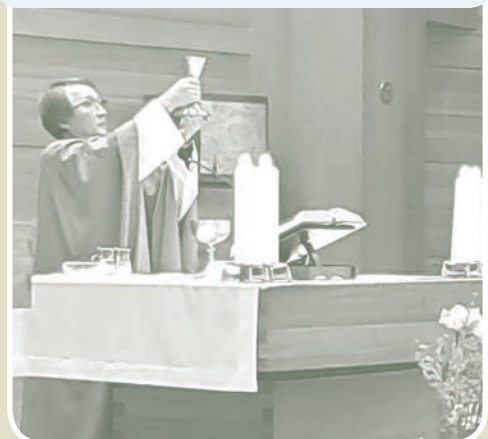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 2025년 4월~5월 후원금 내역 : 10,690,000 원

2025년 7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5년 7월 8일 (화) 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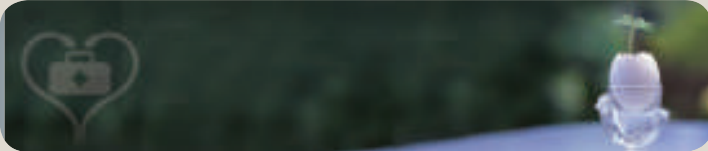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 8월 미사는 쉽니다. 9월부터는 서울역 요셉의원에서 후원회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 회보와 문자메시지로 공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 토비트 4, 11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8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
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2-2637-7258)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2-2637-7258)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
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557810	요셉나눔재단법인
국민은행	364301-04-236621	요셉나눔재단법인

■ 위의 계좌 이외에 기존에 납입하고 계신 요셉의원 계좌도 유효합니다.

요셉의원 이전에 따른 환자 지원 프로그램 변경 안내



목욕서비스

이전 후 필요에 따라 운영 예정



이미용서비스

이전 후 프로그램 준비 중



옷나눔서비스

필요한 환자에게 별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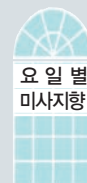
음악 치료 & 영화 포럼

별도 공지 때까지 중단

➡이외 기존 운영 프로그램은 별도 공지 때까지 중단됩니다.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
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봉사 경험과 진료받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진료받으며 느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